



【'재소자들의 어머니' 안효진 보살】

“움직일 수 있을 때 남 도와야 해요.”



안효진 보살(89세)의 방에는 작은 불단이 있고 그 앞에 경상이 있다. 경상에는 <금강경>과 <능엄경>이 놓여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진과 열반하신 청담 스님의

사진이 걸려 있다.

“청담 스님을 몇 번밖에 뵈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 항상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불광사의 광덕 스님 또한 교화활동에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마음속에 큰 스승으로 남아 있어요.”

우연히 불교를 접하고서 너무나 좋아 당시 출이라 도 추고 싶었고, 이것을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었다. 주변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찾이간 곳이 영등포교도소였다.

40여 년을 하루같이 수인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 온 안효진 보살은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교도소 포교를 개척하였으며 봉사활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영등포교도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 40여개 교도소마다 발길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1970년대 그 당시만 해도 불교계에서는 포교와 봉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다. 타종교인들은 쉽게 드나들던 곳이였지만, 불교인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포교를 하겠다는 안효진 보살에게 교도소를 들고나오는 문턱은 높았다. 몇 번이나 가서 사정하고 또 사정하여 겨우 법문을 하게 되었다. 커다란 녹음기를 등에 메고 들어간 첫날을 안효진 보살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별로 배운 것 없는 내가 법문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한 스님들이 하는 것이 좋다 싶어 몇몇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선방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스님들 또한 선뜻 나서기를 꺼립니다.”

처음 교화활동에 뛰어든것을 때는 안 보살의 수중에 돈이 있었기에 그런대로 잘 꾸려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돈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는 절망이었다. 염치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권선을 청하였다. 그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다. 전국 수십 군데의 교도소를 돌면서 교화활동을 하였기에 항상 바빴다. 밥술에 있는 밥을 도시락에 담을 시간이 없어서 비닐봉지에 한 줌의 밥을 담아가면 그것으로 하루 종일 배고픔을 달래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김치가 되기 일쑤다. 그렇지만 집에 오면 또 할 일이 태산 같았다. 열 여덟 번 헛웃기지를 빨래터에 가서 깨끗하게 세탁



하여, 그것을 새벽 서너 시까지 바느질하였다. 출소할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헌 옷을 개조하여 그들이 입고 나갈 옷들을 만들었다.

안 보살은 교정실에 들어가서 잘대로 그네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네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했으며, 그들이 '엄마' 라고 부르면서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묻지 않았다. 항상 검소한 처림이었지만, 나중에는 재소자와 똑같은 형태의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

“부처님은 나에게 흥청망청 쓸 돈을 주지도 않지만, 나를 슬프게는 하지 않아요. 가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해서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꼭 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요.”

안효진 보살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정해진 틀이 없다. 삼평백화점 참사 때는 수지침을 놔주는가 하

면 급식 봉사활동으로 불교계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몸소 보여주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준다.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줄 뿐이다.

사형수들을 보내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이를 위해서 안효진 보살은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 보려고 사방팔방을 쫓아다니기도 했다. 안효진 보살로부터 인과법문을 들은 이들은 다음 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을 하였으며, 마지막 가는 길에는 불상을 꼭 껴안고 가기도 하였다.

고금석씨나 최찬희씨 등 그 당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던 사형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던 일이 안효진 보살에게 있어 큰 보람이다. 안효진 보살은 불교계 처음으로 교정 봉사상을 받았으며, 교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올해 연세가 여든 아홉인 안효진 보살은 2년 전까지 교화활동의 현장을 지켰다. 지금은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다고 하면 달려간다. 정성껏 그들에게 <금강경>을 읽어주거나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준다. 어떤 이는 안효진 보살이 경을 읽어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독송해주기를 청하기도 한다.

“죽으면 이 몸뚱이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남을 위해 물 한잔이라도 떠줄 힘 있을 때 도와야 해요. 나는 이것이 부처님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전단의 향기와 장미의 향 그리고 연꽃과 자스민의 향이 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모든 꽃들의 향기를 앞지른다’고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재소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아픔을 다독여 주었던 안효진 보살의 자비행이야말로 으뜸가는 향기다.

글=문윤정 본지 논설위원, 사진=박재원 기자

40년간 40개 교도소서 전범, 각종봉사도 앞장 불교계 첫 교정봉사상 수상, 대통령 표창도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코 한방 (韓方)

코막힘, 비염, 축농증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막힘, 비염, 축농증 담당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동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대한한의학회 의료광고심의제 제080125-증-2672호